

모 두 발 언

2023. 2. 2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TF 추진배경

그동안 은행권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조치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함으로써
금융의 성장 발판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Ⅲ. TF 검토과제

- 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 ②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③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ay-On-Pay* 도입 여부, 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④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 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⑥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과 함께 언론이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IV. TF 구성 및 운영계획

금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6개 주요 과제는
결코 은행권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금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이슈들은
금융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권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해결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깨어있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고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V. 마무리 발언

은행은 국민에게 금융편익을 제공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첫 회의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